

경주캠퍼스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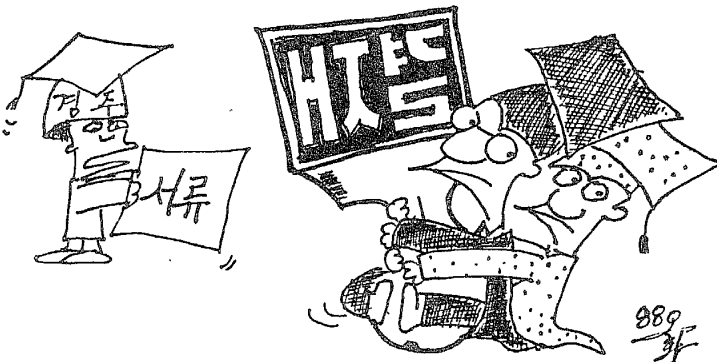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독자성살린 백년대계 터전으로

부총장제를 현실화하여 2원화
체제로 양캠퍼스를 통용하게 상
호보완하고 있다. D大 지방캠퍼
퍼스의 경우 역시 2원화체제

부충장제 현실화로 이원화 체제 시급

자연과학대 건물신축등 시설·공간 확보해야



민족의식
배양의
전당으로

교육의 질적향상과 교육철학 확립이 과제

權
度
燄

[illegible]

1. 食 2. 食 3. 食 4. 食 5. 食 6. 食 7. 食 8. 食 9. 食 10. 食 11. 食 12. 食 13. 食 14. 食 15. 食 16. 食 17. 食 18. 食 19. 食 20. 食 21. 食 22. 食 23. 食 24. 食 25. 食 26. 食 27. 食 28. 食 29. 食 30. 食 31. 食 32. 食 33. 食 34. 食 35. 食 36. 食 37. 食 38. 食 39. 食 40. 食 41. 食 42. 食 43. 食 44. 食 45. 食 46. 食 47. 食 48. 食 49. 食 50. 食 51. 食 52. 食 53. 食 54. 食 55. 食 56. 食 57. 食 58. 食 59. 食 60. 食 61. 食 62. 食 63. 食 64. 食 65. 食 66. 食 67. 食 68. 食 69. 食 70. 食 71. 食 72. 食 73. 食 74. 食 75. 食 76. 食 77. 食 78. 食 79. 食 80. 食 81. 食 82. 食 83. 食 84. 食 85. 食 86. 食 87. 食 88. 食 89. 食 90. 食 91. 食 92. 食 93. 食 94. 食 95. 食 96. 食 97. 食 98. 食 99. 食 100. 食

의정

의정(義正)은 의(義)가 옳고 정(正)이 함을 이르는 말이다. 의(義)는 옳고 바른 것을 이르는 말로, 정(正)은 옳고 바른 것을 바로잡고 고치려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의(義)와 정(正)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의(義)가 정(正)의 기초가 되고, 정(正)이 의(義)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의(義)와 정(正)은 유교 사상의 핵심 개념으로, 유교인들은 의(義)를 행하고 정(正)을 함으로써 사회를 바로잡고 인간을 교화시키려 하였다. 의(義)와 정(正)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Essess Fashion

ONLY VA EN NEW MAN!

프랑스풍의 캐주얼 — 뉴망

캐주얼의 새로운 매력, 뉴망 —
 색감에, 스타일에,
 부드러운 유럽의 맛이 숨쉴다.
 프랑스풍의 캐주얼 — 뉴망

NEW MAN

프랑스 「자크조네」사와 기술 제휴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50th Anniversary 1938-1988

사상 14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린 '88년 세계경제포럼'이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도쿄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세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 각국 정상과 기업 대표,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모여 세계경제의 현황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포럼에는 140여개 국가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11월 8일에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11월 9일에는 '세계경제의 현황'을 주제로, 11월 10일에는 '세계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11월 11일에는 '세계경제의 전망'을 주제로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의 현황'을 주제로, '세계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세계경제의 전망'을 주제로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의 현황'을 주제로, '세계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세계경제의 전망'을 주제로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외자침투를 통해본 국내금융의 여수성

"직접투자자로 이윤추구 확대해"

1. 80년대 미주경
의외로 80년대 미주경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198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198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다.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198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5. 198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은행 순의 국내보다 3배

대부분의 핫머니 투기자금화

외국은행 순의 국내보다 3배라는 사실은, 외국은행 순의 국내보다 3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은행 순의 국내보다 3배라는 것은, 외국은행 순의 국내보다 3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은행 순의 국내보다 3배라는 것은, 외국은행 순의 국내보다 3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핫머니 투기자금화라는 사실은, 대부분 핫머니 투기자금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핫머니 투기자금화라는 것은, 대부분 핫머니 투기자금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핫머니 투기자금화라는 것은, 대부분 핫머니 투기자금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티뱅크지점 증설허용은 금융의 종속화 가속시켜
시티뱅크지점 증설허용은 금융의 종속화 가속시켜라는 것은, 시티뱅크지점 증설허용은 금융의 종속화 가속시켜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티뱅크지점 증설허용은 금융의 종속화 가속시켜라는 것은, 시티뱅크지점 증설허용은 금융의 종속화 가속시켜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분별 외자수입 민족기업 몰락 초래
무분별 외자수입 민족기업 몰락 초래라는 것은, 무분별 외자수입 민족기업 몰락 초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분별 외자수입 민족기업 몰락 초래라는 것은, 무분별 외자수입 민족기업 몰락 초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티뱅크지점 증설허용은 금융의 종속화 가속시켜
시티뱅크지점 증설허용은 금융의 종속화 가속시켜라는 것은, 시티뱅크지점 증설허용은 금융의 종속화 가속시켜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티뱅크지점 증설허용은 금융의 종속화 가속시켜라는 것은, 시티뱅크지점 증설허용은 금융의 종속화 가속시켜라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수한 맛! 보리음료 롯데비비콜

롯데비비콜은 구수한 맛과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구수한 맛 보리음료 롯데비비콜
이제 구수하고 시원한 보리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천연보리엑기스와 천연보리향으로 만든 롯데비비콜을 마시는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상쾌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롯데비비콜은 구수한 맛과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롯데비비콜은 구수한 맛과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롯데비비콜은 구수한 맛과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롯데비비콜은 구수한 맛과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보리음료의 향미를 살려 만든 음료입니다.

철저한 정론직필의 사명을 안고 한치의 험도없이 펜을 들고 전진하라

東大新聞 38년의 역사가 나의 탈수습과 더불어 지령1천호를 넘어섰다. 아마도 동대신문이 나를 간절히 요구한 탓이라 자문해보는 나의 순수열정, 반면 21세기가 요구하



이만섭

는 전환기의 「인텔리겐차」임을 자부하며 결코 쉼은 안될 투쟁을 시작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현재에 대한 반향은 왜 「도라이」란 말인가? 정치·사회경제·문화 모두가 썩어빠진 현 정권에 대한 청년학도로서의 체제저항은 저 등불의 등불이 되기 위한 불투명한 것을, 우리역사의 근대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오욕의 역사는 이제 그 절정에 달했고 쉼을 없는 자유의 역사가 되었음을.

과감히 잘라야 한다. 아니 방사능을 1백년간 쏘여서라도 모두 죽여야 한다. 아니 그걸수만 있어도 좋다. 그 어둠에 동침하는 나는 그래서 흥분하고 이목숨 다바쳐 사랑할 수 있는 선구자를 기다려 보는 것이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부러 씩터는 「도라이」 기일은 나로하여금 이곳 동대신문사

탈수습기

등불이 되기 위한 정론직필의 몸부림

를 들어오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어 「모순」이 되어 오는데 이르러 한결 부끄럼 없는 신문쟁이애로의 야심을 조심스레 새겨본다. 설령 그것이 5시 기사마감의 공포증에서 신배기자들의 날카로운 질타속에서 주눅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장다구만 생겼을지라도.

이제 죽어도 좋을 그날까지, 오고야 말 그날까지 「투쟁」도 투쟁! 해야 하는 당위성을 재인식하며 그 하나의 길로 정론의 비수를 쏜다.

철저한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으로 죽는 그날까지 일관할 것이며, 불이되면 총과 손자까지 가아할 고난의 가시밭길은 아랑과 패기로 역사라는 이름의 배낭을 둘러메고 한치의 험도 없이 펜을 들고 전진하라. 하여 광명의 그날 망일등에서 백발까지가 되어도 한치 부끄럼이 없을 그날까지 철저한 정론직필의 사명을 안고 펜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죽어도 죽어도 멈출 수 없는 민주화의 그날까지

..... <별곡대 인도철학과>

『넌 학생이냐? 기자냐? 아니면 시꺼먼 박쥐냐?』 어둠같은 가식의 탈이 으스러져 피토하도록...

누군가 내게 말한다. 「들떠

있는 놈」이라고. 지금 제책하게, 울고싶어. 「아!」 신고식체 외마디비명이 수습시절 「욕!」이젠 「욕!」 자문투개 바뀐 것뿐인데 전신의 전율이 느껴져. 무척이나 만질을 혼자달려온 듯했네.

지금 이자리에 문득서보니 혼자자 아니었어. 사탕산립동료가 있었고, 버리고 다닐수는 없지만 네가 연인이 돼 주었지.

한중지의 눈물과 피와 최후탄으로 쫓겨온 내 취재수첩에 손가락 침을 발라 맛을 봤어 「잘잘하다!」



조용선

아무에게나 묻고싶어. 『당신들은 잠잠한 이맛을 아십니까?』

울컥진 팬데가 미칠해지고 팬데사이로 난사되는 눈물과

아마에 파도를 타고 작정한 일당파가, 이젠 몸기사도 썩어

왔다. 죽어도 여한은 없지. 후련해. 피터지는 통쾌함을

정소리에 흘리고 싶어. 이젠 시궁창에 처박고 한자루 펜을들

은하수 담배한대에 한강의

원고지를 매주고 소주잔안에

하루를 사이게 했던 너였지

만 지금 이순간 꼭꼭안고 「부

트스」를 추고파. 그리고 말

해보겠어. 「사랑한다!」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들러간 전대협발족식. 난 며

칠동안 도하나의 인생을 경

험했지. 독재의 「속속한」 속에

끌려가는 등지들을 보면서

난 그들을 위해 한계없어.

기자는 가증스러운 때

때 난 절대선 편들렸어.

따가운 햇살이 날 쏘아보며

힐책할때 난 내게 비친 햇

살의 의미를 뒤로한 채 고

개를 땀구어야 했지. 그리고

들었지.

『넌 학생이냐? 기자냐? 아

니면 시꺼먼 한마리 박쥐새

기냐?』

뒤죽박죽 한마리 미친송아

이가되어 광대뼈가 울릴거

때 난 술을 가다듬고 8·

15사 12대원고를 땀구난 3

화정과목과 맞바꿨지.

『이것은 기사냐!』 「이건

보도기사야!」 내 원고는 유

지통에서 자빠졌어.

성남 한개비를 담겨 원고

를 매우며 소리없이 울었어.

덕분에 잠잠한 생각에 왔지.

이제 어둠같은 내 가식의

탈이 으스러져 피토할 때

가 기사를 내게 말한다. 「들

떠 있는 놈!」이라고.

따가운 햇살, 이젠 시궁

창에 처박고 한자루 펜을들

은하수 담배한대에 한강의

원고지를 매주고 소주잔안에

하루를 사이게 했던 너였지

만 지금 이순간 꼭꼭안고 「부

트스」를 추고파. 그리고 말

해보겠어. 「사랑한다!」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들러간 전대협발족식. 난 며

칠동안 도하나의 인생을 경

험했지. 독재의 「속속한」 속에

끌려가는 등지들을 보면서

난 그들을 위해 한계없어.

기자는 가증스러운 때

때 난 절대선 편들렸어.

따가운 햇살이 날 쏘아보며

힐책할때 난 내게 비친 햇

살의 의미를 뒤로한 채 고

개를 땀구어야 했지. 그리고

들었지.

『넌 학생이냐? 기자냐? 아

니면 시꺼먼 한마리 박쥐새

기냐?』

뒤죽박죽 한마리 미친송아

이가되어 광대뼈가 울릴거

때 난 술을 가다듬고 8·

15사 12대원고를 땀구난 3

화정과목과 맞바꿨지.

『이것은 기사냐!』 「이건

보도기사야!」 내 원고는 유

지통에서 자빠졌어.

성남 한개비를 담겨 원고

를 매우며 소리없이 울었어.

덕분에 잠잠한 생각에 왔지.

이제 어둠같은 내 가식의

탈이 으스러져 피토할 때

가 기사를 내게 말한다. 「들

떠 있는 놈!」이라고.

따가운 햇살, 이젠 시궁

창에 처박고 한자루 펜을들

은하수 담배한대에 한강의

원고지를 매주고 소주잔안에

하루를 사이게 했던 너였지

만 지금 이순간 꼭꼭안고 「부

트스」를 추고파. 그리고 말

해보겠어. 「사랑한다!」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들러간 전대협발족식. 난 며

칠동안 도하나의 인생을 경

험했지. 독재의 「속속한」 속에

끌려가는 등지들을 보면서

난 그들을 위해 한계없어.

기자는 가증스러운 때

때 난 절대선 편들렸어.

따가운 햇살이 날 쏘아보며

힐책할때 난 내게 비친 햇

살의 의미를 뒤로한 채 고

개를 땀구어야 했지. 그리고

들었지.

『넌 학생이냐? 기자냐? 아

니면 시꺼먼 한마리 박쥐새

기냐?』

뒤죽박죽 한마리 미친송아

이가되어 광대뼈가 울릴거

때 난 술을 가다듬고 8·

15사 12대원고를 땀구난 3

화정과목과 맞바꿨지.

『이것은 기사냐!』 「이건

보도기사야!」 내 원고는 유

지통에서 자빠졌어.

성남 한개비를 담겨 원고

를 매우며 소리없이 울었어.

덕분에 잠잠한 생각에 왔지.

이제 어둠같은 내 가식의

탈이 으스러져 피토할 때

가 기사를 내게 말한다. 「들

떠 있는 놈!」이라고.

따가운 햇살, 이젠 시궁

창에 처박고 한자루 펜을들

은하수 담배한대에 한강의

원고지를 매주고 소주잔안에

하루를 사이게 했던 너였지

만 지금 이순간 꼭꼭안고 「부

트스」를 추고파. 그리고 말

해보겠어. 「사랑한다!」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들러간 전대협발족식. 난 며

칠동안 도하나의 인생을 경

험했지. 독재의 「속속한」 속에

끌려가는 등지들을 보면서

난 그들을 위해 한계없어.

기자는 가증스러운 때

때 난 절대선 편들렸어.

따가운 햇살이 날 쏘아보며

힐책할때 난 내게 비친 햇

살의 의미를 뒤로한 채 고

개를 땀구어야 했지. 그리고

들었지.

『넌 학생이냐? 기자냐? 아

니면 시꺼먼 한마리 박쥐새

기냐?』

뒤죽박죽 한마리 미친송아

이가되어 광대뼈가 울릴거

때 난 술을 가다듬고 8·

15사 12대원고를 땀구난 3

화정과목과 맞바꿨지.

『이것은 기사냐!』 「이건

보도기사야!」 내 원고는 유

지통에서 자빠졌어.

성남 한개비를 담겨 원고

를 매우며 소리없이 울었어.

덕분에 잠잠한 생각에 왔지.

이제 어둠같은 내 가식의

탈이 으스러져 피토할 때

가 기사를 내게 말한다. 「들

떠 있는 놈!」이라고.

따가운 햇살, 이젠 시궁

창에 처박고 한자루 펜을들

은하수 담배한대에 한강의

원고지를 매주고 소주잔안에

하루를 사이게 했던 너였지

만 지금 이순간 꼭꼭안고 「부

트스」를 추고파. 그리고 말

해보겠어. 「사랑한다!」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들러간 전대협발족식. 난 며

칠동안 도하나의 인생을 경

험했지. 독재의 「속속한」 속에

끌려가는 등지들을 보면서

난 그들을 위해 한계없어.

기자는 가증스러운 때

때 난 절대선 편들렸어.

따가운 햇살이 날 쏘아보며

힐책할때 난 내게 비친 햇

살의 의미를 뒤로한 채 고

개를 땀구어야 했지. 그리고

들었지.

『넌 학생이냐? 기자냐? 아

니면 시꺼먼 한마리 박쥐새

기냐?』

뒤죽박죽 한마리 미친송아

이가되어 광대뼈가 울릴거

때 난 술을 가다듬고 8·

15사 12대원고를 땀구난 3

화정과목과 맞바꿨지.

『이것은 기사냐!』 「이건

보도기사야!」 내 원고는 유

지통에서 자빠졌어.

성남 한개비를 담겨 원고

를 매우며 소리없이 울었어.

덕분에 잠잠한 생각에 왔지.

이제 어둠같은 내 가식의

탈이 으스러져 피토할 때

가 기사를 내게 말한다. 「들

떠 있는 놈!」이라고.

따가운 햇살, 이젠 시궁

창에 처박고 한자루 펜을들

은하수 담배한대에 한강의

원고지를 매주고 소주잔안에

하루를 사이게 했던 너였지

만 지금 이순간 꼭꼭안고 「부

트스」를 추고파. 그리고 말

해보겠어. 「사랑한다!」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들러간 전대협발족식. 난 며

칠동안 도하나의 인생을 경

험했지. 독재의 「속속한」 속에

끌려가는 등지들을 보면서

난 그들을 위해 한계없어.

기자는 가증스러운 때

때 난 절대선 편들렸어.

따가운 햇살이 날 쏘아보며

힐책할때 난 내게 비친 햇

살의 의미를 뒤로한 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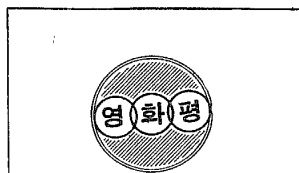
개를 땀구어야 했지. 그리고

들었지.

『넌 학생이냐? 기자냐? 아

여로니.

오 황
<76>



아빠는 출장중

—「치키타...」

사라에 보는

아직거기 있는가?

『포다시 추방당한 거야』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임마는 몰라도 싸고 아버지가 새출발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씀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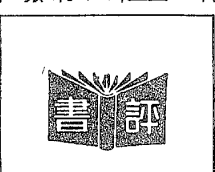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빠와 같이 살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뻐했다』
말리크의 아버지 메사가 속도 안키카와 通情을 하게해 처남 지요에 의해 출장 즉 정치적 갑급처분을 받은 것이다.

원래 「WHEN FATHER WAS A WAY ON BUSINESS」—아빠는 출장중.

에밀 루스트리자 감독, 85년 칸 국제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이 작품은 유고슬라비아의 50년 대초 이념과 가치관이 혼란했던 시기를 6살난 말리크 소년에게 의해 전개된다.

『양철북』의 경우처럼 어린 소년 말리크의 특색과 행동묘사 스토리가 풀어져 나간다는데 속구와 이성애 불투명한 말리크는 동갑내기 마사에 사랑을 느낀다. 어느날 한밤중 구급차가 와서

북한관계 1차자료집들이 출간 붐을 이루고 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해도 국내외 학자들의 북한연구서와 북한기행문류들은 많이 나왔어도 북한문헌이 그대로 소개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연구서와 기행문류들은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첫발을 내딛게 해주는 있지만 자칫 피상적·감상적 이해의 차원에 머무르게 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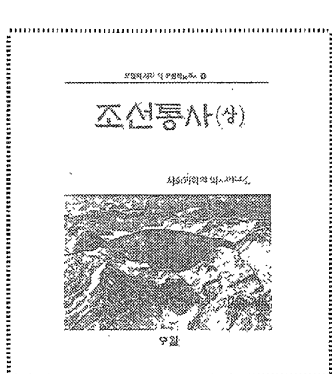
를 보다 근원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역사학을 비롯한 기초적인 인문사회과학의 분야에까지도 우리의 관심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북한관계 1차자료집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북한의 역사학계가 내놓은 대표적인 연구성과의 하나로써 북한사학계의 공식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하겠다. 『조선통사』는 원래 상하 두권으로 1958년에야 편찬, 간행되었다. 그리고 1962년과 1977년 두번에 걸쳐 삼권의 개정판이 나왔으나 하권의 개정판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책은 바로 1977년판 『조선통사』 상권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원시공동체사회—노예소유자 사회 (고조선·부여·진국)—봉건

주체사관에 입각한 한국사의 이해

제 사의 (삼국·통일신라·이조)라는 형태로 시대구분하고 있다. 1977년개정판 『조선통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역시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사관」의 관철일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북한 역사학계를 지배해오고 있는 「주체사관」에 의거하여 서술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관』에서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체사관」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일관되

게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인민대중」의 창조성을 강조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조선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연구하여 이를 근로대중에게 널리 선포해야한다. 이는 북한 역사연구의 대전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주체사관」을 옹호, 실현하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점이 바로 1977년판 『조선통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이 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고구려사에 대한 강조이다. 이 책은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민족사의 적자임을 위치시키고 있으며 수·당의 침입에 대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을 민족적 자주성의 수호로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 반면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은 그 제목에서부터 「신라에 의한 국토남부의 통일」일 따름이며 의외에 의외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준열히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편, 발해사를 민족사 안에 편입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발해사를 민족사 안에 위치지우려는 노력은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발해의 경우 대다수 피지배계층이 우리 민족이 아닌 발갈족으로 구성된

회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한편, 「인민」들의 생활정서, 억압적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서술은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종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관이 계급투쟁 일변도임에 비해 「주체사관」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점이 바로 1977년판 『조선통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이 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고구려사에 대한 강조이다. 이 책은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민족사의 적자임을 위치시키고 있으며 수·당의 침입에 대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을 민족적 자주성의 수호로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 반면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은 그 제목에서부터 「신라에 의한 국토남부의 통일」일 따름이며 의외에 의외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준열히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편, 발해사를 민족사 안에 편입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발해사를 민족사 안에 위치지우려는 노력은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발해의 경우 대다수 피지배계층이 우리 민족이 아닌 발갈족으로 구성된

회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한편, 「인민」들의 생활정서, 억압적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서술은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종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관이 계급투쟁 일변도임에 비해 「주체사관」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점이 바로 1977년판 『조선통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이 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고구려사에 대한 강조이다. 이 책은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민족사의 적자임을 위치시키고 있으며 수·당의 침입에 대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을 민족적 자주성의 수호로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인민대중」의 지배계급의 유희에 대해 폄하하고, 인민들의 생활정서와 억압적 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을 높이 평가한다

어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발해사를 우리 민족사 안에 위치지우는 데에는 상당한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따를수 없는 「금동미륵상」의 웅장함이어...



서울을 출발하여 배시간여, 외파르던 김제평야를 뒤로 남기고 모악산 기슭으로 접어들어 전경, 신갈 부자의 안스런 사연이 전해지는 금산사에 닿았다. 권력을 다투어 신갈은 이곳에 아비를 유배시켰다던가 그리고 아비는 탈출하여 기어이 아들에게 복수를 하고 말았다던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앞에 둔 자들의 어두운 눈이며!

버스에서 내려 사방을 둘러보니 절로 가는 길 옆으로 카바레의 간판이 번듯한듯하다. 잠시 어디를...

정신을 가다듬으니 곧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렇잖아도 번갯불의 자리에 들기엔 일차 흥진을 떨어버리기 위해서는 한바탕 비비적이며 춤을 추는것도 좋으리라.

나무에 달린 감들의 불꽃이 펜스레 붉기만한 길을 따라 심연분을 걸어 올랐더니 문득 금산사의 문턱이 나서고 절의 내력을 알리는 안내판이 서있다. 금산사—백제 29대 법왕대에 창건, 일진전정전에는 7백여의 병의 근거지, 미륵전, 진신사리함, 13층석탑, 금동미륵상존일상 소재—안내문을 대강 읽어보고 안으로 들어선 마당의 우측으로 3층의 거대한 목조전들이 보였다.

미륵전이었다. 어찌 이런 건물들을 순전히 나무로만 지을 수 있었던 말인가. 조상들의 건축술에 감탄을 하면서 내부를 살펴보니 거기 봉안된 금동미륵상존일상의 규모는 더욱 놀라웠다.

이제껏 보아온 우리나라의 작은 불상들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비례와 웅장함이 있었다. 미륵전을 돌아 나오니 한참 공사가 진 행중인 빈터가 눈에 띄었다. 일미전 방파제 소실된 대웅전의 복원공사란다. 그리고 보니 미륵전의 뒷쪽 뜰에도 불이 그들린 자국이 있었다. 대지배비의 가르침과 신행이 넘쳐야할 부처님의 화에 어인 감정이 솟아 이런 화를 초래 하다가 싶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모악산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김제평야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달리는 버스의 속력이 패적했는지 잠에 들었다 깨어보니 어느새 버스는 변산반도의 해안에 닿아 있었다. 채석강을 경유해야 한다면 일행들은 바다로 향한 길로 접어들었다. 길가의 웅대한 넓이와 마당에서 탁골을 하던 여인네들이 우리 일행을 한참이나바라다 보았다. 꼬맹이들 서너이 탁골이 옆에서 뛰놀다 멈추어서는 어른들을 따라 우리쪽을 향해 돌

아서고 이내 한 꼬마가 손을 흔들며 준다. 담테로 손을 흔들려 했으나 여인네들의 지쳐 놓여진 표정 앞에 손을 흔드는 꼴이라니 스스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다.

채석강의 넓은 명석바위와 멀리 보이는 섬, 한 척의 배가 지나고 이제 막 붉은 노을이 타들어오는 변산해안의 일찍이 풍경은 두전 아름다웠다. 몇장의 사진기를 켜고 시간을 재촉하는 안내원에 쫓겨 다시 버스로 돌

아오니 이미 밤중이었다. 버스는 발걸음 두시간쯤 달려서 내장산입구의 속박촌에 우리 일행을 내려 주었다. 간단히 늦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여관밖으로 나서니 은빛의 달이 냇가를 뿔어 내린다. 동료 몇명과 간이주점에 들라 마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수월 이남으로 졸졸 흐르던 감이 참 맑기도 하더라도 잠깐 해 보았다.

나의 감탄을 들은 남쪽이 고향인 한 친구가 그 많은 감이 추수를 한 일손이 없어서 그대로 떨어져 쇄고 만다고 일러준다. 그럴리가 있는가 의아해 하니 종일 감이 떨어 보아야 인근도에 나가 싸구려품을 파는것만도 못하니까 그렇단다. 지금의 농촌현실은 풍족과 무관하게 공평할 수 밖에 없다는 그친구의 농촌현실을 들으면서 뒷맛을 막걸리잔만 탁자에 두드려대며 내장산에서의 일박은 뒤여가고 있었다.

정 연 길 <문과대국문과>

자 기도했음을 여실히 알수 있다. ▲하나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이자 후계자에게서 무참하게 배신당했다는 해야 할까. 「새마을비리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그의 꿈은 서서히 백일몽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아우가 구속되고 그의 「수족」들이 하나 둘 제거되어 갔으니 말이다.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나보다. 어차피 현정권도 5공세력에서 들어섰기에 말이다. ▲열마전에국무위원에서 5개단정들은 논의하기위해 모인 사람들 가운데 5공화국과 관련이 없는 인물은 나현재총리 단 한사람뿐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보여지듯이 현정권이 5공과 「손을 떼는 것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한다는 것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할지 틀이다. 아! 울겨울도 유난히 추울것만 같다. <煥>

▲요며 칠동안계 숙원 「청문회」의 T·V 생중계로 도심의 거리가 한산했다니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의 청문회제도가 낯설은 탓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화면을 지켜보면서 두가지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나는 과거의 정권이 저지른 죄과가 어느 정도까지 밝혀지는가를 지켜보자는 것이요. 또다른 하나는 그들이 뽑은 국민과 동격이라는 선포를 언제 사실을 밝혀내 그들의 마음속 한켠에 자리잡은 응어리를 속 시원히 풀어 주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지켜 보는 것이리라.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문득 「수렴청정」이 연상된다. 지금은 「연희정」이란 곳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소세화가 만든 「일해재단」에 대한 비리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더욱 그러하

다. 그가 만들어놓은 「청남대」나 각지방의 도지사공관에 설치된 대통령전용시설에 헬고까지 느껴왔는데 「일해재단」의 영빈관이 그에 못지 않은 초호화시설이며 또한 전제국대통령직을 내놓은 후 그곳에서 머물며 수렴청정을 기도했다는 의혹을 품은 사람은 한 두명이 아닐것이다. 전제는 정권말기에 까지 호헌론을 고수

수렴청정

하며 자신의 후계자에게 정권을 무사히 양도하고자 했으며 또한 지난 봄, 임기만료직전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 「上王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실정기 더욱 굳어진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소세화는 최소한도 임기를 마치고 친구에게 권좌를 넘겨주기까지는 일해재단소소의 영빈관에 앉아 마후에서 실력을 행사하고

「韋編三絶의 季節」

「韋編三絶」孔子가 만년에 易經을 애독한 나머지 책을 묶은 가족간이 세번이나 끊어졌다는故事에서 유래한 이말은 부단한 讀書을 통해 學問에 정진하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음이다

우리나라 大學生들의 학습량이 先進國 學生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專攻書齋의 독서량은 3분의 1에 불과 하다는 최근의 보고는 우리 大學人의 將來와 나라의 앞날, 이 모두를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나이다

社會가 大學人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專攻分野에 대한 깊은 知識과 深奧한 大學의 學問을 바탕으로 사회의 主導의 役割을 할 福넓은 人間性임이다

가을, 韋編三絶의 季節을 맞이하여 一권의 책이라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國民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POSCO메세지 면회편

“韋編三絶의 季節”

「韋編三絶」孔子가 만년에 易經을 애독한 나머지 책을 묶은 가족간이 세번이나 끊어졌다는故事에서 유래한 이말은 부단한 讀書을 통해 學問에 정진하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음이다

우리나라 大學生들의 학습량이 先進國 學生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專攻書齋의 독서량은 3분의 1에 불과 하다는 최근의 보고는 우리 大學人의 將來와 나라의 앞날, 이 모두를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나이다

社會가 大學人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專攻分野에 대한 깊은 知識과 深奧한 大學의 學問을 바탕으로 사회의 主導의 役割을 할 福넓은 人間性임이다

가을, 韋編三絶의 季節을 맞이하여 一권의 책이라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國民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진리의 동산에 학문의 성화 높이 들렸다



本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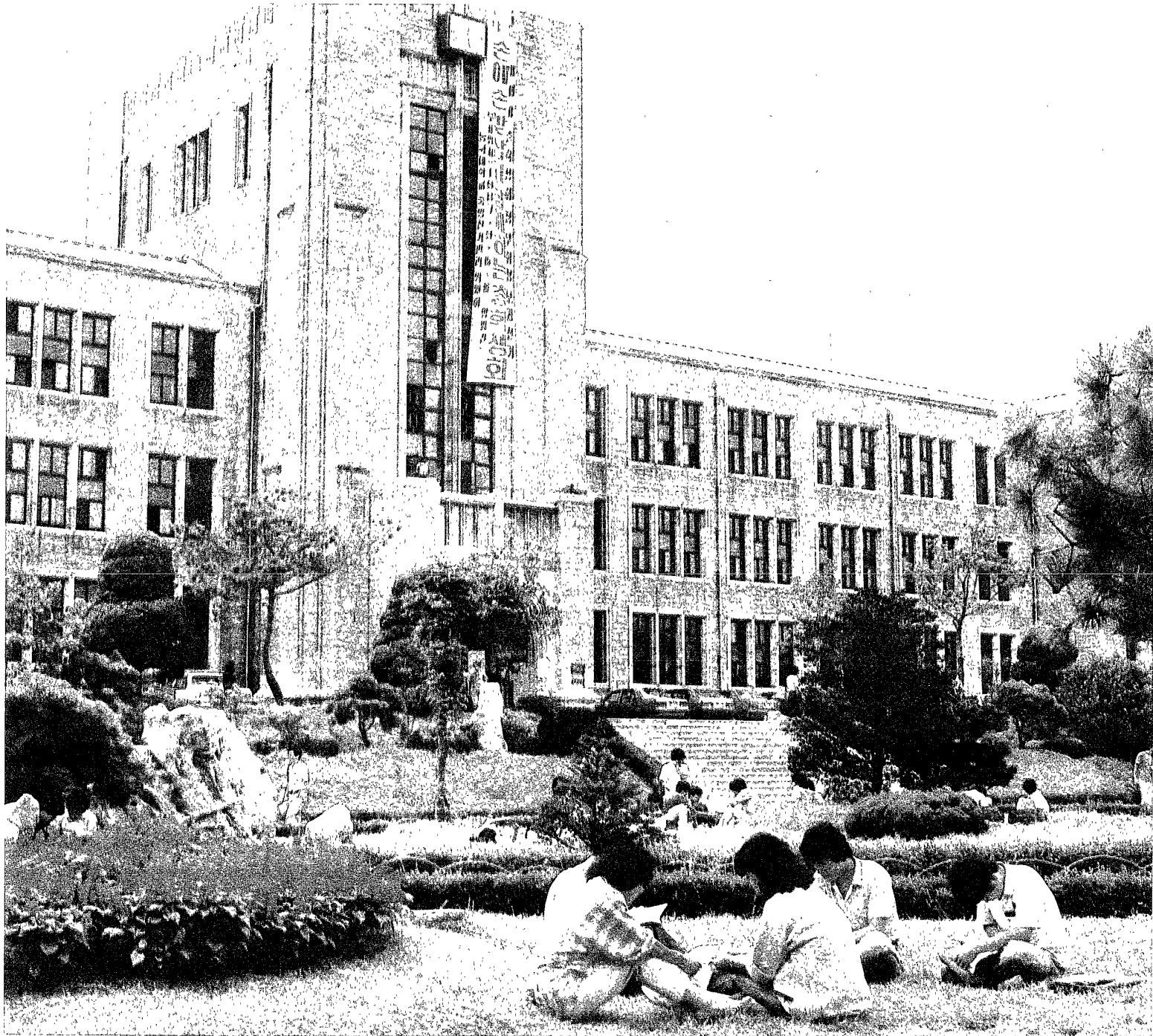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남산의 중턱에 위치한 서울캠퍼스는 멀리 북한산과 북악의 연봉을 마주 보고 장충공원·남산공원으로 연결되어 위치, 환경이 좋고 남안이 남치는 학문의 전당이다.

그리고 1978년 설립된 경주캠퍼스는 형산강의 푸른물과 복천의 맑은물이 합류하고 우뚝한 옥녀봉과 장중한 석장봉이 병풍처럼 둘러싼 석장을 중턱에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건설된 건물로 이미 서울캠퍼스의 시설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이부대학 등 11개 단과대학에 52개 전공학과, 경주캠퍼스는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경대학, 상경대학,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등 6개 단과대학에 31개 전공학과가 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등 5개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의 제반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서울에 기획조정실,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등 1실 3처가 있으며 경주에는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가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한방병원, 실험농장 등 16개 기관이 있고,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일본학연구소, 신라문화연구소 등 21개 연구소가 있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UCLA, 이스턴와싱턴대학, 일본의 고마자와대학, 다이쇼대학, 독일의 레겐스부르크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국제적인 학술, 문화의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세계속의 동국으로 응모하고 있다.

한편 83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명문 사학으로서의 전통을 지켜온 본교는 7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오락, 이상과 야심에 찬 젊음이 들끓어

신입생은 "위대한 유망파"이다

신입생은 기다리며

기독교가 계시(啓示·revelation)를 바탕으로 하여 위(歸依·conversion)를 수반한다면, 불교는 자각(自覺·consciousness)을 바탕으로 하여 해탈(解脫·deliverance, liberation)을 지향한다.

부연할 것도 없이 자각이라 함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닫는 것이며 해탈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풀고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해탈(解放)이란 말은 피동적으로 놓여나가는 것인데 반해, 해탈은 풀고 벗어난다는 뜻에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적 행동을 요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러한 인간의 주체적 의지와 행동을 지향하는 불교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세운 대학입니다. 금세기 초 서양과 일본의 제국주의 천막으로 부터 우리 겨레를 지키려던 "자각"을 바탕으로 하는 해탈의 노력, 이 유한한 방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사적 소명과 인간본



질의 지향은 그 설립정신으로 하는 우리 동국대학교는 설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83년 동안 온갖 시련과 갈등을 극복하며 꾸준히 우리의 목표를 추구해 왔습니다.

대학교가 걸어온 83년간의 로해서 미래에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2500년의 걸친 부처님의 고구 정열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동국대학교가 쏟아 온 민족해탈에 대한 피나는 노력도 영원한 우리의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1989년!

나는 또다시 이 자각과 해탈의 길을 함께 하려는 새 길동무(道伴)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주체적 정신을 이어받아 영원한 역사에 접목(接木)하려는 이상과 야심에 찬 젊은이들이 우리 동국의 한마당에 모여 다름을 닦고 품을 갈아 동국의 꿈의 의복을 "바"의 말을 더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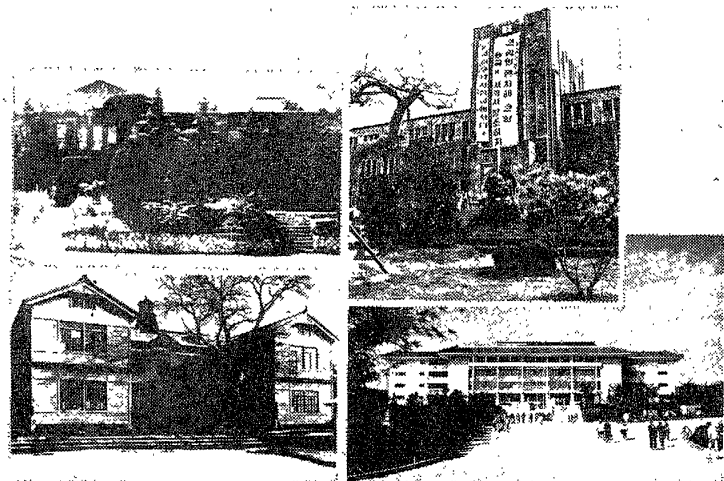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총장
철학 박사
李 智 冠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 — 동국대학교

〈우〉려보라 진리의 동산 학문의 성화 높이 들렸다/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라

동국대학교는 바로 이러한 이상으로 1906년 5월 8일 한국불교계 선각자들이 민족자본에 의한 민족교육을 부르짖으니 전신인 명진(明進)학교의 출발이었다.

이후 본교는 불교사범학교—불교고등강숙—중앙학림—불교전문학교—중앙불교전문학교—예화전문학교로 교명을 바꾸며 그 발전적 여정을 서술했으니 이때 부터 본교엔 뜨겁고 진한 민족의 피가 학문과 사상의 풍향계 위에서 번져나갔다.



1946년 9월 20일 본교는 마침내 대학승격과 함께 「동국(東國)」이라는 교명을 정했으며, 1953년 2월 6일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 승격과 1978년 10월 12일 경주캠퍼스 설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향내 가득찬 학문의 연지를 이루고 있다.

〈큰〉 광명, 큰 지혜, 큰 힘으로 누리의 어두움 밝히노니
이제 동국대학교는 개교 82주년을 맞으면서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퇴의 정진」이라는 교육지표를 다시금 새기고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힘찬 비상(飛翔)을 결의하고 있다.

1906~1988

198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요강



동국대학교

원서교부 11월17일~21일
원서접수 11월21일~24일

1. 모집구분및 인원

캠퍼스	대학	계열구분	학과 코드	학과	모 집 인 원	비 고				
서울 캠 퍼 스	불교대학	인 문	A01 A02 A03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	40 20 20					
	문과대학	인 문	B01 B02 N05 B03 B04 B05 B06 B07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문학과(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40 50 50 50 30 30 30 30					
			C31 C32 C33 C34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 통계학과	40 40 40 40					
			법과대학	인 문	D01	법 학 과	80			
			사회과학 대	인 문	E01 E02 E03 E04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40 40 40 40			
					F01 N01 F02 N02 F03 N03 F04 N04 F05	경제학과 경제학과(야) 통계학과 통계학과(야) 경영학과 경영학과(야) 회계학과 회계학과(야) 정보관리학과	50 50 55 55 55 80 60 55 40			
			농과대학	자 연	G31 G32 G33	농 학 과 농 학 과 농업생물학과	30 30 30			
				인 문	G01	농업경제학과	30			
	공과대학	자 연	H31 H32 N31 H33 H34 H35 H36 H37 H38 N39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학과(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야)	40 60 60 40 40 40 40 40 40 60					
			K01 K02 K03 K04	국어교육과 국사교육과 교육학과 지리교육과	40 40 40 40					
			사범대학	인 문	K31 K32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30 30			
				예·체능	K51	체육교육과	40			
			예술대학	예·체능	L51 L52 L53 L54 L59	미술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연극영화학과	12 12 12 13 30			
					서울캠퍼스 합계				52개학과	2, 180
					경주 캠 퍼 스	인문과학 대	인 문	Q01 Q02 Q03 Q04 Q05 Q06 Q07 Q08 Q09 Q10 Q11	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문학과(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40 65 75 50 40 40 50 40 40 40 40
	Q51	한국학전공 서양학전공 조선학전공 불교미술전공						12 12 12 13	신 설	
	자연과학 대	자 연						R31 R32 R33 R34 R35 R36 R37	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과	50 50 50 50 50 50 40
			S01 Z01 Z02	법학과 법학과(야) 행정학과				60 40 60		
	상경대학	인 문	T01 T02 T03 Z02 T04 T05 T06	경제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80 75 80 75 75 50 40		
한의과대학			자 연	W31				한의학예과	80	신 설
의과대학			자 연	X31				의예과	50	
경주캠퍼스 합계				31개학과		1, 630				

2. 응시자격

가. 고등학교졸업자및 1989년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단, 불교대학 선학과 지원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나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은자

3. 지원방법

가. 본 대학교 내 복수지원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복수지망은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 동일계열에 한하여 제2, 3지망까지 허용한다. 단, ①선학과를 제2, 3지망으로 지망할 수 없다.
②한외과지원자는 의예과, 의예과지원자는 한외과에 한하여 제2지망까지 허용한다.
나. 예·체능계의 복수지망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체육특기자로 결정된 자는 인문·자연계 및 예·체능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라. 가정교육과 (경주캠퍼스포함) 및 불교아동학과는 남학생이 지원할 수 없다.
마.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교차지망은 허용하지 않는다.

4. 전형방법

(1)인문계 및 자연계학과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다음의 비율로 배점하여 전형한다.

구 분	학력고사성적	내 신 성 적	합 계
비 율	70%	30%	100%
배 점	340점	145.7점	485.7점

(2)예·체능계학과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실기고사성적을 다음의 비율로 배점하여 전형한다.

구 분	학력고사성적	내 신 성 적	실 기 고 사	합 계
비 율	30%	30%	40%	100%
배 점	340점	340점	453.3점	1,133.3점

5. 대학입학 학력고사

가. 출 제 :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한다.
나. 채 점 : 각 과목별로 본교 교수로 구성된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다. 과목별가중치 :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 캠퍼스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26번지
전화 : 직통 (02) 272-8723, 교환 (02) 267-8131~45

라. 선택 과 목 : 실업및 제2외국어 과목중 택1한다.
마. 기 타
(1) 답안작성은 주·객관식으로 구분 작성한다.
(2) 객관식 답안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식 답안은 흑·청색 볼펜이나 만년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답안지에 수험번호및 성명이 기록되지 않은 답안은 무효로 한다.
(4) 객관식 답안 작성시 한년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수 없으며, 정정된 문항의 답안은 무효로 한다.

6. 전 형 일 정

(1)입학원서 교부 : 1988년11월17일(목)~11월24일(목)
(2)입학원서 접수 : 1988년11월21일(월)~11월24일(목) 오후5시까지
(가) 우편접수는 1988년11월24일(목)오후5시까지 도착한 입학원서에 한하여 접수
(나) 토요일·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입학원서를 교부함.
(3)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서울캠퍼스 :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무과
(나) 경주캠퍼스 :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무과
(4)제 출 서 류
(가) 입학원서 1부 (본교 소정양식)
(나) 석차연명부 해당페이지 사본 1부 (학교장 직인 및 원본대조필 날인)
(다) 사법제학과 지망자는 학교장추천서 1부 (입학원서 후면 소정양식, 고졸검정고시합격자는 최종출신학교장 추천서 1부)
(라) 선학과 지망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또는 교구 본사 주지의 추천서 1부
(마) 고졸 검정고시합격자는 지원서 접수시 검정고시 합격증및 체력검수표 원본과 사본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되, 체력검수표 원본은 접수시, 검정고시합격증 원본은 예비소집시 되돌려 받는다.(입학원서에 시·도 교육위원회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의 합격사실 확인 생략)
(5)전 형 료
(가) 일반계 : 25,000원
(나) 예·체능계 : 30,000원 (실기고사료 5,000원 포함)
(다) 입학원서 및 요강대 : 1,000원
(6)전 형 일 시
(가)수험생 전체 예비소집
①서울캠퍼스
인 문 계 : 1988년12월14일 (수) 10:00 서울캠퍼스 대운동장
자 연 계 : 1988년12월14일 (수) 13:00 서울캠퍼스 대운동장
예·체능계 : 1988년12월14일 (수) 16시 서울캠퍼스 대운동장
②경주캠퍼스
인 문 계 : 1988년12월15일 (목) 10시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자연계, 예·체능계 : 1988년12월15일 (목) 13시 경주캠퍼스 대운동장
(나)대학입학 학력고사
①일 시 : 1988년12월16일(금)08시40분~17시10분까지(서울·경주캠퍼스 동일)
*08시10분까지 입실완료
②장 소 : 서울캠퍼스지원자—서울캠퍼스고사장 및 본교에서 정한 각고사장
경주캠퍼스지원자—경주캠퍼스고사장 및 본교에서 정한 각고사장
(다)면 집
①서울캠퍼스
인문계열지원자 : 1988년12월17일(토)10시 서울캠퍼스 고사장
자연, 예·체능계열지원자 : 1988년12월17일(토)14시 서울캠퍼스 고사장
②경주캠퍼스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지원자 : 1988년12월17일(토)10시 경주캠퍼스 고사장
(라)신 체 검 사
*경찰청장학과, 한외예과 및 의예과 지원자 (제2, 3지망포함)는 면접후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며, 미수검자는 불합격 처리함
*색맹검사 대상학과는 합격자 발표후 색맹검사를 실시한다
(마)예·체능계 실 기 고 사
①일 시 : 1988년12월18일(일)~12월23일(금)10시~17시
②장 소 : 서울캠퍼스지원자—서울캠퍼스 각고사장
경주캠퍼스지원자—경주캠퍼스 각고사장
*예·체능계학과 실기고사에 관한 사항은 예비소집시 안내한다

7. 합격자 발표

(가)일 시 : 1988년12월29일(목)17시이전
(나)장 소 : 서울·경주캠퍼스 각 대운동장

8. 지원자 유의사항

①입학원서 작성후 부득이 지망란을 정정하고자할때는 반드시 오기된 부분을 두줄로 긋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야한다
②예·체능계학과 지원자는 입학후 전과 할수 없다
③제1지망과 제2, 3지망의 계열이 상이할 때에는 제1지망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제2지망, 제3지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본교의 모든 입시업무는 전산처리되므로 입학원서 작성시 착오없기 바라며, 잘못작성시 불합격등 모든 불리한 결과는 지원자가 책임져야 한다
⑤고사당일 (12월16일)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버스등)을 이용하기 바람

※신입생 장학제도

●서울 캠퍼스

장 학 명	지 금 조 건	장 학 금 액	인 원
명진특별장	학력고사 310점이상	입학금·등록금면제, 월30만원지급 (도서구입비및 학비보조)	
	학력고사 300점이상	입학금·등록금면제, 월20만원지급 (도서구입비및 학비보조)	
명진장학	학력고사 295점부터 299점 이내자 또는 대학4년간 고교내신성적 1등급으로 학력고사 290점 이상자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50
학림장학	학력고사 285점부터 294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2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280점 이상자	수업료 전액	100
혜화장학	학력고사 275점부터 284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3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270점 이상자	수업료·기성회비 반액	100
동국장학	학력고사 270점부터 274점 이내자	대학4년간 수업료 반액	200
일반장학	본교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300

●경주캠퍼스

장 학 명	지 금 조 건	장 학 금 액	인 원
명진특별장	학력고사 310점이상	입학금·등록금면제, 월30만원지급 (도서구입비및 학비보조)	
	학력고사 300점이상	입학금·등록금면제, 월20만원지급 (도서구입비및 학비보조)	
명진장학	명진장학학력고사 295점부터299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1등급으로 학력고사 290점 이상자	대학4년간 등록금전액 (입학금포함)	50
학림장학	학력고사 275점부터 294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2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270점 이상자	대학4년간 수업료 전액	50
혜화장학	학력고사 265점부터 274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3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260점 이상자	수업료·기성회비 반액	100
동국장학	학력고사 250점부터 264점 이내자	대학4년간 수업료 반액	100
일반장학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200

*1. 경주캠퍼스 한외예과 및 의예과는 명진장학 이상에만 해당됨.
2. 4년 계속 지급하되 학기말성적이 B-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학기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다.
3. 장학금 지급 대상은 본교 입학전원 합격자에 한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할시에는 석차순에 의함.
4. 명진특별장학으로 선발된자는 본교대학원 진학시 등록금 전액지원 및 해외자매교 유학 추천의 특권을 부여함.

경주 캠퍼스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 직통 (0561) 43-1030, 교환 (0561) 2-0131~6
43-1011~20